

#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이 다문화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 The Effect of Multicultural Family's Functions on the Social Competence of Multicultural Childre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Parental Efficacy-

박점자  
신라대학교

Jeum Ja Park(evn1004@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아동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구조적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다문화아동을 직접 돌보고 있는 다문화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156부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다문화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과 다문화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문화가정 어머니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개입 방안을 제언하였다.

■ 중심어 : | 다문화가정 가족기능 | 다문화가정 어머니 양육효능감 | 다문화아동의 사회적능력 | 매개효과 |

###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verify structural relations between multicultural family's functions,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parental efficacy, and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ith the subjects of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and children. To attain the goal, the researcher collected data through a survey with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conducted to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and multicultural center workers taking care of multicultural children and utilized 156 sheets for final analysi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multicultural family's functions exert positive effect on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parental efficacy, and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parental efficacy indicates positive effect on multicultural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lso,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parental efficacy has completely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 between multicultural family's functions and multicultural children's social competence. Based on these study results, the researcher suggests ways to intervene with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and multicultural family in order to help multicultural children grow and develop soundly.

■ keyword : | Multicultural Family's Functions |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Parental Efficacy | Multicultural Children's Social Competence | Structural Equation Model | Mediating Effect |

## 1.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해 그 자녀수 역시 2007년 44,258명, 2008년 58,007명, 2009년 107,689명, 2010년 121,935명, 2011년 151,154명, 2012년 168,583명, 2013년 191,328명으로 매년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1]. 이렇듯 다문화 사회로의 빠른 변화는 우리사회에게 다문화 사회의 주체로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2].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특성 중 하나는 많은 경우 여성결혼이민자들에 의해 다문화가정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언어, 문화, 생활 습관이 다른 한국사회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기까지 언어소통문제, 문화적인 차이, 정보와 관련된 지지체계의 부족, 경제적 곤란 등 극복해야 할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3]. 주목할 점은 이들이 지닌 여러 문제들 중 많은 부분들이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들로 나타난다는 것이다[4]. 이는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사회에서 언어, 생활, 가치 등 적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한국사회의 자녀양육방식을 모르고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야 하는 상황 때문에 부모역할에 혼란을 느끼고 자녀양육에 자신감을 잃게 된다[5].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교육을 책임지는 문화 풍토인 우리나라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어머니가 아동양육을 전담하게 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발달이 지체될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6][7]. 실제로 [8]의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을 조사한 결과 언어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과 관련된 자녀문제가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부모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보다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일반가정 자녀에 비해 학습부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성장과정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집단따돌림 등으로 건강하지 못한 충격을 경험하기도 하고, 상급학교 미진학 문제도 보고되고 있다 [9]. 다문화가정 자녀 전체 인구수 192,328명 중 12세 이

하 아동이 차지하는 인구수가 가장 높은 현 상황[1]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적응상의 어려움은 이후 사회통합 및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가 다문화가정의 아동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동기의 사회적 능력은 발달과정의 중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주양육자인 어머니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8][12]. 아동이 어린 시기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정서적 발달을 토대를 형성하며, 이 시기의 긍정적 발달이 이후의 성격이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3]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14]를 볼 때, 가정환경을 비롯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성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반을 형성한다[17]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시기 동안 발생하는 발달 지연은 역기능적인 가족기능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전 생애에 걸쳐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8].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아동에 관심을 두어 가족기능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이들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무엇보다 이들이 가진 적응 및 발달상의 문제가 다문화 어머니 혹은 아동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정환경의 열악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족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과 다문화아동의 사회적 능력 관계를 매개하는가?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가족기능은 아동기의 발달에서 특히 강조되는 이론이다. 이는 가족의 기능이 적절하지 못할 때 아동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아동들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18]. 이렇듯 가족기능이 아동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아동기의 경우 발달상 특성에 따라 가족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된 가치관 및 생활태도가 아동의 성격형성, 대인관계, 자아발달 등의 영역을 통해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족기능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의 주요 변인으로 예측되지만 또 다른 연구[19-21]에서는 가족기능이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부모 특히 어머니 요인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 이는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아동기에 있어서는 가족 자체보다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아동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아동의 발달에서 가족기능과 어머니요인은 가장 강력한 선행조건임을 전제하고 이들 변수들의 유기적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가족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가족기능이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혹은 어머니 요인을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1.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과 다문화아동의 사회적 능력

가족기능과 사회적 능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3]는 부모의 양육행동인 부모와 아동 간의 놀이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이것이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가정에서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한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24]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또래 관계를 조사하여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은 아동이 또래관계가 훨씬 더 좋고, 또래관계가 좋지 않아도 덜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을 보고하면서 어머니와 더 가까운 아동이 보다 책임감이 있고, 덜 비판적이며, 더 협력적이라고 밝혀 어머니와 자녀 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어머니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유아들과 훈육

적으로 인식한 유아들의 사회적 능력이 높고, 부정적으로 인식한 유아들의 사회적 능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또한 사회적 능력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5]는 유아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합리적으로 지도하며, 적절한 제한을 할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고, 적대적이거나 일관성 없이 지나치게 통제적인 어머니의 자녀는 낮은 사회적 능력을 나타냈다고 보고한바 있다. [25]는 부모-자녀 간 관계가 자녀의 사회성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밝혀 부모의 양육태도뿐 아니라 부모-자녀 간 관계가 아동의 사회성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그 외 [26]은 가정에서 자극과 경험을 많이 제공할수록 아동은 사회적으로 활동적이며, 낮은 상황이나 낮은 이에게 잘 적응하고 협력적이며,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과 비협조적인 행동을 적게 보인다고 하였다.

한편, 다문화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가정요인은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보고되지만 정작 가족기능과 사회적 능력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힌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가족기능과 사회적 능력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18]의 연구에서 정상가정과 결손가정 청소년의 가족기능과 심리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들의 연구를 보면 가족기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기능과 자녀의 사회적 능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 2.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가족은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단위이자 개인이 최초로 대인관계를 통한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사회 환경으로써 아동의 신체, 정서, 사회 및 대인관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체계이다[27]. 특히 가족 내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의 형태 및 질적 특성은 아동들의 발달 및 성숙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아동의 가정 내 상호작용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어머니 요인은 아동발달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아동 발달과 관련된 어머니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어머니의 외현적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

어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23]는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념 및 사고, 정서적 변인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어머니의 자녀 양육행동의 기저에 내재되어 있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긍정적으로 지각될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보다 적절하고 아동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아동을 능력과 자원이 많은 존재로 인정하고 문제해결상황에서 더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등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고 일관되게 행동한다고 한다[14].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28]. 양육효능감과 가족건강성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28]에서는 가족건강성과 양육효능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어머니가 가족건강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양육효능감은 높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가족원 간에 애정과 친밀감이 있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이라고 지각하는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다고 보고하였다[28]. 가족기능과 관련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족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30][31]. 특히 이민여성의 가족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와 그들의 건전한 양육을 가능하게 하는 양육효능감 간의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연구[32]를 보면 다문화여성의 양육에서 가족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같은 대처자원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32]은 양육스트레스와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보고하였다. [33]도 부모의 심리적 특성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사회적 지원이나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매개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기질을 까다롭게 지각할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낮았으며, 감소된 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이 부정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양육효능감이 모의 자아형성뿐 아니라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거나 관련성을 가지면

서 궁극적으로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과 인지능력 등 전반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34].

### 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아동기 발달단계에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매우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환경, 특히 부모의 영향이 강조되고 있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일차적으로 가족 내에서 형성되며, 가족 중에서도 아동과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

[35]에 의하면 어머니와의 관계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첫째,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아동은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둘째, 어머니와의 관계는 아동이 사회적 혹은 비사회적 환경을 탐색하는데 필요한 정서적·인지적 자원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아동이 어머니를 환경 탐색을 위한 안정적 기반과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의 출처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어머니와의 관계는 다른 사회적 관계의 시초가 된다. 아동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와 가정을 형성하기 시작하며, 자아를 보호하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와 같이 어머니는 아동의 상호작용 대상으로서 아동이 최초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존재이며, 또래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발달시키는 역할을 한다[36]. 이는 어머니가 아동을 어떻게 양육하는가에 따라 아동이 환경에 적응하는 정도에 차이가 남을 의미하고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37]에서도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유아자신의 특성이나 또래 관계, 부모-자녀 간 관계 등이 있으나 이 중에서도 어머니는 자녀와 가장 밀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므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른 양육관련 연구들도 부모자신이 자녀양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양육효능감 변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20].

최근 다문화 관련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양육을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자녀의 주양육자인 결혼이민여성의 환경적 요인뿐 아니라 이들이 인지하는 양육효능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38]. [38]에 따르면 과거에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90년대 이후 양육행동에 선행되는 부모의 신념, 가치, 목표, 효능감 등의 인지적 요인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핵가족화와 같은 양육환경의 변화로 젊은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아동기 자녀양육은 부모에게 경제적, 심리적, 시간적 부담을 안겨주는 등 어머니로서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40].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부모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보이게 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인지적, 사회적 능력을 갖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39][19]. 양육효능감은 또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41]. [42]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독립심을 권장하고 자율적이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로 양육할 때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적응능력이 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환경은 아동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일관된 보고가 있어왔다. 또한 아동에게 어머니 요인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관련 변수와의 관련성이 단선적으로 검증된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련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한 것을 알 수 있다. 가족기능이 아동발달에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대처자원으로서의 매개효과 역할을 하는 변수로 보고되기도 하므로 이들 변수의 구조적 관련성을 검토하는 것은 다문화아동에 대한 개입의 영역을 다양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가족기능이 다문화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다문화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모집단은 다문화가정 중 결혼이민여성과 한국인 남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정 자녀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 6세 이하 아동 중 만 4세부터 만 6세 이하의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이다. 이러한 연령을 연구범위로 한정된 것은 이 시기가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연령으로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시기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43]. 연구의 표본은 부산지역 다문화센터(7개소) 이용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표집방법은 어머니의 국적을 고려하여 각 다문화센터에서 유의표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방법은 설문지로 이루어졌으며, 가족기능 및 가족의 일반적 사항은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다문화아동의 사회적능력은 아동을 현장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혹은 교사)가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도움을 주기로 한 기관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담당 교사 혹은 실무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 시 유의사항을 알려주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용 설문지는 어머니의 국적을 고려하여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등으로 번역한 다음 그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안하여 연구자가 의도한 질문내용을 검토한 다음 아동을 통해 해당 가정으로 전달하였다. 그 외 국적을 가진 다문화가정은 방문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절차는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시간과 문항의 이해도 등을 살펴본 다음 수정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3월에 이루어졌다. 배포된 설문지는 모두 162부였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한 156부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다문화아동은 남자가 68명(43.6%), 여자 88명(56.4%)이며, 연령은 만3세 49명(31.4%), 만4세 36명(23.1%), 만5세 26명(16.7%), 만6세 45명(28.8%)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국적은 베트남 76명(48.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필리핀 42명(26.9%), 중국 28명

(17.9%) 등이며 그 외 일본(5명), 미얀마(2명), 캄보디아(2명), 대만(1명) 등의 소수 응답을 보였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연령분포는 30대가 81명(51.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0대 58명(37.2%), 40대 17명(10.9%)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한국 거주기간은 6-9년 74명(47.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4-5년 42명(26.9%), 1-3년 과 10년 이상이 각각 15명(9.6%) 순이다.

##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2.1 독립변수: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

본 연구에서 가족기능성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으로 측정된다.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은 가족 체계내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가 반영된 것을 의미한다. 가족응집성은 가족구성원간의 정서적 연대감을 의미하며, 가족적응성은 가족구성원간의 상황적 과정과 발달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가족관계에서의 역할, 규칙, 권력구조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44]. 본 연구에서 가족적응성과 응집성을 측정하기 위해 [44]가 개발한 FACES-III(Family Adaptability - Cohesion Evalua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가족응집성 10 문항과 가족적응성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평정된다. 각각의 척도별 점수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가족응집성의 내적 일치는 .904, 가족적응성은 .875로 나타났다.

### 2.2 매개변수: 다문화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이란 과제수행에 대한 동기와 자신감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을 양육의 차원에 적용시킨 것으로 자신이 바라는 바를 언어내기 위해서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신념이자 생산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45].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내의 양육효능감 척도와 문헌들[40][46]을 기초로 [47]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의 응답방식은 각 문항에 대해 어머니들이 얼마나 동

의하는지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으로 평정된다. 하위요인은 자녀의 생각이나 요구를 이해하는 능력, 자녀에게 부모의 생각을 전달하는 능력 등과 관련된 '의사소통능력' 8문항, 양육에 대한 지식,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지도, 자녀의 행동에 대한 일관적인 지도능력과 관련이 있는 '교육지원' 8문항, 부모로써 느끼는 전반적인 상황이나 느낌과 관련된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5문항 등 전체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다고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에서는 의사소통능력 .931, 교육지원 .916,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848로 나타났다.

### 2.3 종속변수: 다문화아동의 사회적능력

사회적 능력은 사회적 차원의 광범위한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능력으로 개인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 및 상황에 적절히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술 및 적응능력을 나타낸다[19]. 다문화아동의 사회적 능력도를 측정하기 위해 [41]이 개발한 Iowa Social Competence Scale: Preschool Form 중 교사용 질문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역·수정한 [42]의 척도에서 신뢰도가 지나치게 낮은 문항을 삭제하고 재구성한 [43]척도를 기초로 하여 사용한다. 문항의 척도는 총5단계 Likert 척도로 각 문항 당 1점에서 5점으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검증에서는 지도력 .933, 유능성 .879, 안정성 .785로 나타났다.

##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활용하여 연구문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가족기능, 양육효능감, 사회적능력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이들 변수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전 모형추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변수의 정규성과 결측치 분포를 점검하였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

을 사용하여 일차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후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으며,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과 다문화아동의 사회적능력 간의 관계에서 다문화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었다. 우선 측정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보면 왜도 값은 .05~-.49, 첨도는 -.07~-.70의 범위에 분포하여 모든 측정변수들의 정규성의 조건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모든 변수들이 유의수준 .001에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1							
②	.623***	1						
③	.733***	.550***	1					
④	.771***	.454***	.763***	1				
⑤	.734***	.419***	.739***	.709***	1			
⑥	.511***	.347***	.474***	.499***	.467***	1		
⑦	.602***	.400***	.630***	.552***	.536***	.653***	1	
⑧	.412***	.354***	.375***	.417***	.385***	.719***	.649***	1
M	3.61	3.55	3.65	3.56	3.55	3.08	3.49	3.14
SD	.78	.78	.78	.73	.76	.86	.86	.86
왜도	-.11	-.10	-.30	-.03	.06	.05	-.49	-.05
첨도	-.70	-.58	-.26	-.28	-.39	-.22	-.22	-.07

\*\*\*p<.001, ①가족응집성 ②가족적응성 ③의사소통 ④교육지원 ⑤양육자신감 ⑥지도력 ⑦유능성 ⑧안정감

#### 2. 연구모형 분석

##### 2.1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의 과정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이 실제 경험적 자료를 적합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측정모형 분석은 구조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측정변인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러한 측정분석은 요인적재량을 통해 추정되는데, 각 잠재변수 당 가장 큰 값의 측정변수를 1.0으로 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항목에 대한 요인적재량의 크기를 추정한다. 분석결과,  $X^2=40.075(df=21, p=.000)$ , TLI=.958, NFI=.960, CFI=.974, RMSEA=.069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본 연구의 분석자료를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이  $p<.001$ 에서 모두 유의미 하였다[표 2].

표 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경로	B	S.E.	t
가족기능→적응성	1		
가족기능→응집성	1.067	.056	19.375**
양육효능감→양육자신감	1		
양육효능감→교육지원	1.034	.066	15.594***
양육효능감→의사소통	1.160	.069	16.909***
사회적능력→안정성	1		
사회적능력→유능성	1.133	.101	11.241***
사회적능력→지도성	1.142	.101	11.278***

\*\*\*p<.001

##### 2.2 연구모형 분석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이 다문화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X^2=40.075(df=21, p=.000)$ , TLI=.958, NFI=.960, CFI=.974, RMSEA=.076로 나타나 연구모형이 본 연구의 자료에 타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3]은 연구모형에 포함된 경로계수를 통해 직접경로들의 유의성을 판단한 것이다. 분석결과,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beta=.893, p<.001$ ), 양육효능감은 사회적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358, p<.05$ ). 그러나 가족기능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 경로를 삭제한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하였다.

표 3. 연구모형 경로계수

경로	B	S.E.	$\beta$	t
가족기능→양육효능감	.884	.053	.893	16.731***
양육효능감→사회적능력	.319	.168	.358	1.983*
가족기능→사회적능력	.280	.318	.166	1.691

\*\*\*p<.001

2.3 경쟁모형 분석

연구모형에서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이 다문화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이 경로를 삭제한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표 4. 경쟁모형 경로계수

경로	B	S.E.	$\beta$	t
가족기능→양육효능감	.884	.052	.895	16.840***
양육효능감→사회적능력	.582	.074	.653	7.826***

\*\*\*p<.001

분석결과,  $X^2=48.934(df=18, p=.000)$ , TLI=.965, NFI=.961, CFI=.979, RMSEA=.057로 나타나 연구모형에 비해 좀 더 나은 모형의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모든 경로의 요인부하량이 p<.001에서 모두 유의미 하였다[표 4]. 이러한 결과에서 경쟁모형이 연구모형에 비해 자료에 더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경쟁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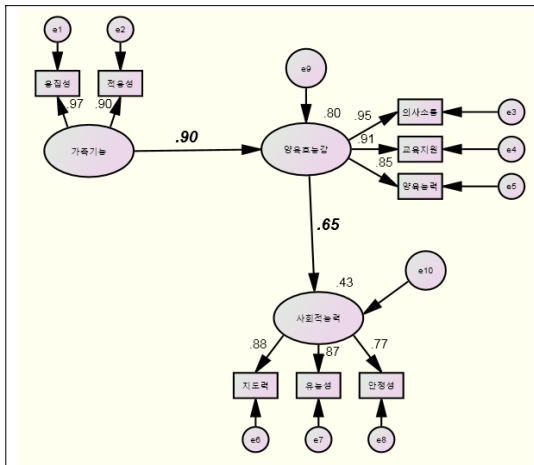


그림 1. 경쟁모형 분석결과

[그림 1]은 경쟁모형 경로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잠재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에 .90의 정적인 영향을( $\beta=.90, p<.001$ ), 양육효능감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65의 정적인 영향( $\beta=.65,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기능성이 높으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 으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으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최종모형으로 선정된 경쟁모형의 변수들이 갖 는 효과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로 구분하여 [표 5] 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는 직접효과를 가지 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다문화아동의 사 회적 능력에 직접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은 다문화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정 어머니 의 양육효능감을 매개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능 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Sobel 검증은 Z값이 1.96보다 클 때, 95% 신뢰수준에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본다[40]. 검증결 과 가족기능과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경로에서 구해진 Z값은 7.852( $p=.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다문화가정 어머니 의 양육효능감은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과 다문화아동 의 사회적 능력을 완전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최종모형의 효과분해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가족기능→양육효능감	.884(.895)	-	.884(.895)
양육효능감→사회적능력	.582(.653)	-	.582(.653)
가족기능→사회적능력	-	.515(.584)	.515(.584)

표 안의 숫자는 B( $\beta$ ) 값임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 및 아동을 대상으로 다



문화가정의 가족기능이 다문화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가족기능과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연구[28]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가족지지 및 가족건강성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관계가 정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과 양육효능감을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반가정에 비해 가족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사실은 결혼과 동시에 입국하여 출산과 양육 등을 책임져야 하는 다문화가정 여성에게 있어 가족기능이 건강하고 지지적일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모아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기능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다각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다문화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자신의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부모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보이게 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인지적, 사회적 능력을 갖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39]. 이에 대해 [19]은 과거에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90년대 이후 양육행동에 선행되는 부모의 신념, 가치, 목표, 효능감 등의 인지적 요인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핵가족화와 같은 양육환경의 변화로 젊은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아동기 자녀양육은 부모에게 경제적, 심리적, 시간적 부담을 안겨주는 등 어머니로서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경우 외국인 어머니의 언어문제를 비롯한 문화갈등 등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양육의 책임을 맡게 되면서 양육효능감에서 자신감을 갖추는 것이 큰 과제로 남겨질 수 있다.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효능은 자녀의 사회적 기술뿐 아니라 학습과 행동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보고[28]를 볼 때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개입이 요구된다. 다만 양육효능감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에 대한 개입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 대한 개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상호영향을 미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은 다문화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비롯한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행동 그리고 태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보고[24][25]에서 볼 때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가족이라는 큰 체계보다는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자신감 등 아동과 상호작용이 많은 어머니 체계와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37]에서도 아동의 사회적 능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유아자신의 특성이나 또래관계, 부모-자녀 간 관계 등이 있으나 이 중에서도 어머니는 자녀와 가장 밀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므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혹은 중재효과를 보고한 선행연구[39] 즉,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문제행동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매개 혹은 중재역할을 가진다는 결과에서도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하여 가족기능이 다문화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다문화아동의 연령은 만4세에서 만6세까지로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보다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연령이 어린 아동을 가진 다문화가정의 경우 아동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어머니에 대한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적 개입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령전기 아동이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개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에 대한 개입이라는 점이다. 아동기의 특성 상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과 관련된 교육 및 집단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단순히 어머니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기능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가족원 간에 애정과 친밀감이 있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이라고 지각하는 어머니는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다고 보고하였다[28]. 따라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지적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가족지지를 비롯한 배우자의 지지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48]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문화가정 부부관계를 개선 및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가족활동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여성의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에 대한 임파워먼트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인적자원의 개발 및 교육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회적 서비스 기관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잠재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물리적 자원구축 예를 들어 '다문화멀티센터'를 마련하여 자녀건강 및 교육, 보육과 양육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다문화여성들이 다양한 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복합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와 자녀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정의 가정기능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유기적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내 다문화아동에 초점을 두어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그 가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하였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의 모집단이 일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를 요한다. 또한 다문화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예언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 및 다문화가정의 취약한 가정기능을 보호하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들 변수에 대한 관심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여성가족부, 2012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결과보고서 II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서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3.
- [2] 전종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비교*,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3] 한상영, *다문화가정 여성의 자녀양육경험*,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4] 김지현,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위한 영유아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5] 오성배,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글교육*, 제32권, 제3호, pp.61-83, 2005.
- [6]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2005.
- [7] 이재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실태 연구: 국제결혼 가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8.
- [8] 김화수, 황상심, "다문화가정의 언어환경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어머니들의 한국어 능력 및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pp.122-124, 2008.
- [10] 조영달,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6.

- [11] 김화수, 이은경, “취학 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 특성”,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11권, 제3호, pp.209-226, 2009.
- [12] 김영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취학 전 아동의 언어특성 및 CAI를 활용한 부모훈련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13] J. Belsky, M. Rovine, and D. G. Taylor,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the origi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maternal contributions,” *Child Development*, Vol.55, pp.706-717, 1984.
- [14] 송연숙, 김영주, “양육신념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연구”, 아동교육, 제16권, 제4호, pp.107-117, 2007.
- [17] 전영실, “가족특성과 아동학대 피해의 관계. 피해자학연구”, 제11권, 제2호, pp.53-77, 2003.
- [18] 박삼수, 임경희, “정상가정과 결손가정 청소년의 가족기능과 심리사회적숙도의 관계”, 상담평가연구, 제1권, 제2호, pp.29-43, 2008.
- [19] 문태형, “어머니의 사고양식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23권, 제6호, pp.97-107, 2002.
- [20] 최형성,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21] 최혜숙, “특수아동 부모의 작업치료 요구도”, 대한건강과학학회지, 제3권, 제2호, pp.5-19, 2008.
- [22] K MacDonald and R. D. Parke, “Brin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Vol.55, No.4, pp.1265-1277, 1984.
- [23] K. A. Kerns, L. Klepac, and A. K. Cole, “Peer relationships and pre-adolescents’ perceptions of security in the child-mother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2, No.3, pp.457-466, 1996.
- [24] 김정아, 아동의 사회적능력과 관련된 제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25] 김숙자, 부모의 이혼과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성숙도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26] 박정임, “문제음주자의 A.A.참여가 음주문제 재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제1권, 제2호, pp.41-61, 2008.
- [27] J. J. Goodnow,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Child Development*, Vol.59, pp.286-320, 1989.
- [28] 안선희, 김선영, “가족의 건강성과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제12호, pp.219-230, 2004.
- [29] 설경옥, 문혁준, “취학 전 유아의 가정환경 자극 및 양육효능감과 가족건강성과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7권, 제1호, pp.23-40, 2011.
- [30] 김순옥, 임현숙, 정구철,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 가족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p.221-235, 2013.
- [31] 이시연,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가족관계,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 비행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759-771, 2014.
- [32] C. Izzo, L. Weiss, T. Shanahan, and F. Rodriguez-Brown, “Parental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adjustment in Mexican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Prevention and Intervention in Community*, Vol.20, p.182, 2000.
- [33] 안지영,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제1호, pp.2-13, 2001.
- [34] 김현미,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35] W. W. Hartup, Peer relations.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103-196, New York: Wiley, 1983.

[36] 한민경,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된 어머니 양육행동 및 아동의 정서 이해능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38] 박종인, *다문화가정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39] 문혁준,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9권, 제1호, pp.205-219, 2005.

[40] P. K. Coleman and H. H. Karraker,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 and future application," *Developmental Review*, Vol.18, pp.47-85, 1998.

[41] 김순옥, 유치원, *초등학교 자녀들을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서 및 지능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42] 이진희, *이주여성 어머니 교육프로그램이 모성 역할 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 및 신생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43] 김금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44] D. H. Olson, J. Porter, and Y. Lavee, *FACES-III (Family Adaptability-Cohension Evaluation Scale)*, St. Paul: University of Minnesota, Department of Family Social Science, 1985.

[45] A. Bandu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 Free man & Company, 1977.

[46] C. Johnston and E. J. Mash,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18, No.2, pp.167-175, 1989.

[47] 조영숙, 이양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취학전 아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Vol.45, No.4, 2007.

[48] B. E. Molnar, S. L. Buka, R. T. Brennan, J. K. Holton, and F. Earls, *A Multilevel study of neighborhoods and parent-to-child physical aggression: result from the project on Human*

*development on Chicago neighborhoods*, Child Maltreatment, Vol.8, No.2, pp.84-97, 2003.

저 자 소 개

박 점 자(Jeum Ja Park)

정회원



▪ 2014년 3월 ~ 2015년 2월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관심분야> : 사회과학